

13. 2024. 6. 28. 금. 15시까지 귀뚜라미에게 받은 짧은 편지 정호승 울지 마 엄마 돌아가신 지 언제인데 너처럼 많이 우는 애는 처음 봤다 해마다 가을날 밤이 깊으면 갈대잎 사이로 허영계 보름달 뜨면 내가 대신 이렇게 울고 있잖아	14. 2024. 6. 28. 금. 15시까지 달밤 조지훈 순이가 달아나면 기인 담장 위로 달님이 따라오고. 분이가 달아나면 기인 담장 밑으로 달님이 따라가고. 하늘에 달이야 하나인데 순이는 달님을 데리고 집으로 가고. 분이도 달님을 데리고 집으로 가고
15. 2024. 6. 28. 금. 15시까지 나룻배와 행인 한용운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밭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쏘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그러.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낚아 잡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16. 2024. 6. 28. 금. 15시까지 기 도 김옥진 소유가 아닌 빈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받아서 채워지는 가슴보다 주어서 비워지는 가슴이게 하소서 지금까지 해왔던 내 사랑에 티끌이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앞으로 해나갈 내 사랑은 맑게 흐르는 강물이게 하소서 위선보다 진실을 위해 나를 다듬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바람에 떨구는 한 잎의 꽃잎일지라도 한없이 품어 안을 깊고 넓은 바다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바람 앞에 스러지는 육체로 살지라도 선(善)앞에 강해지는 내가 되게 하소서 크신 임이시여 그리 살게 하소서 철저한 고독으로 살지라도 사랑 앞에 깨어지고 낮아지는 항상 겸허하게 살게 하소서 크신 임이시여